



고성문화회가 지난달 30일 왕곡마을에서 첫 번째 계절모임을 갖고, 회원 시낭송 및 앞으로의 활동방향 등에 논의했다.

왕곡마을서 문학을 이야기하다

고성문화회 첫번째 정기 계절모임...시낭송 · 합평회

지난 2월26일 창립총회를 가진 고성문화회(회장 이선국)가 지난달 30일 왕곡마을에서 첫 번째 정기 계절모임을 갖고, 회원 시낭송 및 앞으로의 활동방향 등에 논의했다.

전통 한옥의 처마 끝으로 초록 빛 봄비가 소리 내어 내리는 왕곡마을 회관에서 '봄이 오는 길목에서'란 주제로 열린 이날 모임에는 전체 20명의 회원 가운데 소설가 김석록씨 등 12명이 참석했다.

이날 모임에서는 황연옥 시인의 '새벽하늘', 이선국 시인의 '문틈으로'와 '봄빛' 등 회원작품 시낭송회와 낭송한 작품에 대한 합평회(합동평가)가 진행됐다.

고성문화회는 회원의 창작활동 지원과 활발한 정보교류를 위해 고성문화회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, 종합문예지 발행, 백일장 개최, 문학강좌 개최, 재능 있는 후배문학도 육성 등 지역문예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.

또 회원 문학역량 강화와 문학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 또

는 수시 모임을 자주 갖고, 문학을 포함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고성지역 문예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.

다음 정기 계절모임을 7월 23일 감하인 아트홀에서 갖기로 했다.

최광호 기자

이번호부터 고성지역 문인들의 시 작품을 연재하는 '가라홀시단(加羅忽詩壇) 코너를 마련합니다. 가라홀(加羅忽:가라는 물가, 홀은 성(城)은 뜻함)은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고구려 시대 간성군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. 가라홀시단은 고성출신으로 시창작 활동을 하는 시인들의 작품을 주로 소개하며, 아울러 시를 쓰게 된 배경 등을 소개하는 '시작노트'도 함께 게재합니다.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.

가라홀시단(加羅忽詩壇)

새벽하늘

황연옥

저토록
터져오를 듯
빗살무늬 되어 번져오름은
어느 님의 낯일까?
날개 치며 오르는
새들의 뒷모습을 쫓아
환상으로 피어오르는
새벽의 깃.

웅대한 산맥은
잠잠히 호흡하는데
정녕 눈부시게 타오르다
한 줌의 재가 되어야하는
신기루인가

용광로 같은
광명의 텅어리를 출산하고
진통을 끝낸 산실의
저 끝에서
청아하게 울리는
이 아침의 찬란한 광상곡이여!

※시집 『흩어진 나그네의 꿈』에 수록



-고성고(10회), 춘천교대, 숙명여대교육대학원 졸업.
-1990년 <문학공간> 시부문 신인상 수상.
-현재 고성문화회 부회장, 한국문인협회 회원, 부천 계남초등학교 교사.
△저서 : 시집 『흩어진 나그네의 꿈』 외 3권, 창작 동화집 『땅꼬마 민들레』, 동시집 『감자 속에는 푸른 풀밭이 있나봐』 등.

◆시작노트

어느 날 새벽, 동해바다에 갔다. 바다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용광로에서 아침 해를 출산하고, 하늘은 새들의 날개 깃을 따라 빗살무늬를 그리며 붉은 기운들을 벗어버리고 있었다. 우리의 삶의 모습도 무언가 많이들 이루어려고 하지만, 어쩌면 희로애락을 노래하는 한 소설의 광상곡일지도…….



송림과 해당화가 어우러진 철새도래지 화진포 갈대밭에서 듣는 가을동화의 사랑이야기

화포리펜션은 가족단위의 휴식처는 물론 방문하신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 기억될 좋은 곳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.

봄이면 신비한 들꽃과 함께할 수 있고
여름이면 집 주위의 울창한 산림과 계곡물로 더위를 식히고
가을이면 하늘 풍경에서 딸 수 있는 밤이 주렁주렁
눈 내리는 겨울이면 눈꽃이 연출한 절경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

화포리펜션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132번지
www.hwapori.co.kr ☎033-682-1223, 010-6309-0003